

정책건의

■ 크라우드펀딩은 주로 창업 초기의 기업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제품홍보 및 마케팅 기능도 함께 수행함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공유가 용이해지고 쌍방향 의사소통의 창구가 다양해지면서 기업투자의 방법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문투자자의 영역에서 일반대중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크라우드펀딩은 이와 같은 기술적 환경 변화로 인해 영국에서부터 자생적으로 발달하였으며 미국, 한국 등에서도 이제 자연스러운 투자 방법으로 안착
- 경기도는 스타트업의 크라우드펀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스타트업의 성장 및 생태계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경기도 내 창업기업의 효과적인 시장 진입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크라우드펀딩 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점 검토가 필요

■ 크라우드펀딩은 보상 방식에 따라서 크게 증권형(투자형), 후원형(리워드형), 대출형(P2P), 기부형으로 구분됨

- 증권형: 자금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식·채권 등 증권을 제공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주로 초기스타트업이 자금 수요자임
- 후원형: 주로 자금모집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티켓, 시제품, 서비스 등 비금전적 혜택을 자금공급자에게 보상(rewards)으로 제공하는 방식
- 대출형: 자금공급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제공하는 방식이며, 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쉽지 않은 개인이나 사업자 등이 수요자임
- 기부형: 자금공급자가 경제적 보상 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로 문화·예술·복지 분야에서 이루어짐

**■ 경기도 스타트업 플랫폼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설문조사 결과
크라우드펀딩 추진 경험은 32%, 성공률은 65.6%로 나타남**

- 응답한 100개 기업 중에서 32%가 크라우드펀딩 추진 경험이 있었으며, 펀딩 성공률은 65.6%로 나타남
- 크라우드펀딩 효과에 대해서는 68.8%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5%는 '매우 효과가 있었다'라고 응답
- 크라우드펀딩 진행 시 선호하는 방식으로는 '후원형(리워드형)' 선호율이 57%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증권형(주식형)'이 33%로 나타남
- 크라우드펀딩 효과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홍보', '제품·서비스 시장 검증', '적시 자금조달' 순으로 높게 인식함
-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펀딩 성공 이후 경기도가 추가로 지원했으면 하는 후속 사업으로는 '사업화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은 'VC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R&D 사업 참여 지원', '해외 크라우드펀딩 지원' 순으로 나타남

**■ 크라우드펀딩 지원 대상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 후속 투자 유치, 혁신기술 보유 등 평가 필요**

- 단순 일회성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비즈니스 확장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
- 후속 투자 유치 가능성이 크고 성장이 기대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지원
- 혁신기술이 집약되어 있거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여, 타 기업이 쉽게 따라하거나 복제하기 어려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지원
-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큰 요인을 갖춘 기업 지원
- 경기도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났으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경험이 있거나 펀딩에 적극적인 기업이 상대적으로 사업 인지도가 높아, 이들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가 필요함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모집률 및 펀딩성공률 확대를 위한 전략 방안을 제시**

- 개인일반투자자 모집 확대를 위한 펀딩 프로젝트 기획 필요
- 개인적격투자자 모집 확대를 위한 펀딩 프로젝트 기획 필요
- 개인전문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전략 수립
- 발행기업의 연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산점 및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소득공제 가능한 크라우드펀딩은 펀딩모집률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홍보 필요
- 모집률을 높이거나 펀딩성공에 이르게 하는 요인(독립변수)은 주식형과 채권형 모두 유사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요인별로 차이가 있음. 따라서 크라우드펀딩 추진 목표에 따라 적절한 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크라우드펀딩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조정 및 후속사업의 기획이 필요**

- 전국 크라우드펀딩 총량, 경기도기업 참여 비중, 주식형 펀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 규모를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산 조정 필요
- 일반제조/게임/ICT서비스 업종은 후원형을, ICT제조/바이오헬스케어 업종은 주식형을, 제품판매단계 기업은 후원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업종이나 제품개발 단계에 따라 적절한 종류의 크라우드펀딩 지원 전략 필요
- 경기도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서 펀딩 성공한 기업에 대해 후속 사업 지원이 필요하며, 기업의 성장과 연계한 사업기획이 필요함
 - 경기도는 펀딩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후속 사업으로 현재 '사업화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기업들은 후속 사업으로 '사업화 지원' 다음으로 'VC 투자유치 지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경기도 민간투자 연계형 사업'에 참여 유도를 검토하여 단순 보조금 지급방식이 아닌 투자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시도 필요
 - 경기도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서 펀딩 성공한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지원 방안 마련

키워드 창업기업, 크라우드펀딩, 경기도